

法住寺 捌相殿의 木部接合

金 東 賢

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一層 적다. 勿論 그 點만으로서 菩薩像(거의가 觀音像) 造像이 衰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卽 金銅菩薩小像이 盛行하였던 隋代와의 交涉이 三國末期 부터 비롯하였기 때문인데 그 主導權을 쥔 것도 百濟造像界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리고 百濟最末期에는 이미 唐樣式의 移入 조차 보이는 것도 百濟觀音像의 形式이나 樣式을 進展시키고 多樣化시켰는데 그것은 進歩的인 百濟樣式은 當然히 百濟가 滅亡한 뒤에도 卽 統一新羅期에 내려와서도 殘存하여서 統一新羅樣式을 形成하는 原動力이 되었다고 推考되는 바이다. 勿論 古新羅代 부터 계속되는 新羅樣式의 傳統도 그 基盤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百濟의 進歩性에 대하여 保守의 性格을 特色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新羅樣式이 主流가 되었을 때 비로소 眞正로 新羅化한 金銅觀音像도 생겼는데 本稿에 들은 金銅觀音像(圖版1)은 도리어 이 新羅化以前的 百濟樣式이 濃厚한 作品이며 따라서 百濟에 流入하였던 中國의 樣式도 또한 如實하게 살필 수가 있는 것이다. 換言하자면 統一新羅樣式의 先驅를 이루는 것으로서 一面에서는 아직 三國時代樣式의 範疇에 加할 수도 있을 것이다.

結論으로서 이와 같은 金銅觀音像을 거쳐서 다음의 統一新羅期의 金銅觀音像이 남게 되는 바 그 點이 像은 三國末期 부터 統一新羅期初期에 이르는 過渡期의 作品으로서 매우 貴重한 資料이다. 우아한 表情이나, 柔軟한 姿態는 百濟樣式을 받았고 一面 그 重厚한 感은 新羅造像의 特色을 따름인가, 특히 光背과 全身光인 點은 新羅獨自의 形式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註)

- 一、「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佛像部 第十二圖
- 二、「國寶圖錄」第三輯 佛像篇 圖版一三
- 三、拙稿「慶州石佛의 系譜」(美術研究) 百五十號 參照
- 四、「慶州南山의 佛蹟」圖版六
- 五、「三國遺事」卷三「皇龍寺九層塔」條 參照
- 六、拙稿「三國時代彫刻樣式의 時代區分에 就하여」(金載元博士 回甲記念論

忠北 報恩郡 內俗離面에 位置한 法住寺 境內 捌相殿(國寶 第五五號)은 國內 唯一의 木造五層塔으로 지난 一九六八年부터 一九六九年에 걸쳐 重建된지 三四〇餘年만에 完全解體復元된 바 있다. 이 建物이 木造五層塔으로 國內에 단 하나 밖에 없으므로 해서 學界의 關心事가 되어 왔던 것은 물론이고 木造塔址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立場으로서도 이 미 없어진 木塔들의 復元的 考察을 爲해서도 이 建物 內에 潛在되어 있는 一連의 關係資料를 얻고자 함에 이 建物 研究에 對한 더 큰 意義가 內包되었다. 그러므로 이 建物의 完全 解體復元 工事に 關心과 期待를 걸었고 徹底한 調査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調査員 全員은 이러한 重壓感을 느끼며 工事 期間中 始終 現場에 駐在하면서 調査 任務를 遂行하였다. 그러나 賦與된 業務量에 比해 調査員 및 豫算의 不足으로 滿足할만한 資料蒐集은 안되었지만 基本的인 資料 調査는 充實을 期하였다. 이들 資料의 詳細한 報告는 後日 發行될 工事 報告書에 收錄키로 하고 여기에는 木部의 接合細部에 對하여 略記하고자 한다.

木部의 接合이라 하면 外觀相 露出되지 않는 部分이기 때문에 소홀히 取扱하는 傾向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巨大한 建物도 하나하나의 部材가 接合되므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小規模의 建物로부터 大規模의 建物에 이르기까지 木造建物은 全部材의 接合이 음과 맞춤으로 材와 材가 서로 結構되어 骨格을 이루고 形態를 構成한다. 그러므로 個體 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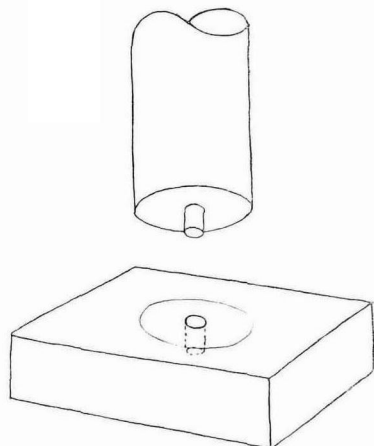


圖 3. 기둥뿌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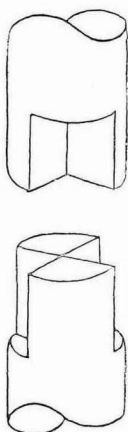


圖 4. 十字 쌍축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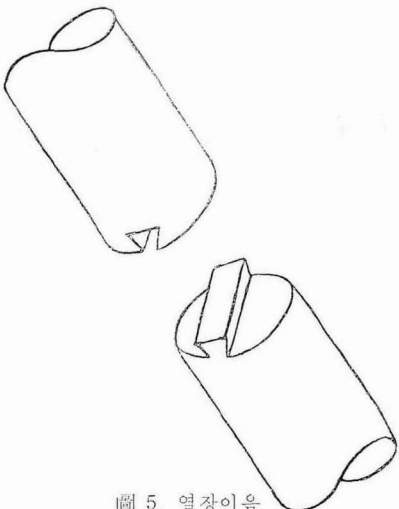


圖 5. 열장이음

게 만들어 이음한 後 빠져 나오지 않도록
루 사용한다. 이때 축의 크기는 圓材일때
直徑의 四分之一 内外로 길이

용되었다. 比較的 적은 斷
面의 部材를 垂直 이음할
때 쓰이는 것으로 이음할
兩材의 斷面을 十字로 心
에서 直交하도록 四等分하여
對稱되는 四分圓을 따내어
이음하는 接合法이다. 이
이음법을 이곳에 사용한 것
은 材의 直徑이 一尺 未滿
이며(材徑은 七、五寸) 用
途가 木心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相輪部의 骨材가 되
는 木心은 建物 最上 部에
서 風壓을 받게 되어 있
으므로 축의 接合面積이
다른 이음에 비해 많아
튼한 이 十字雙축 이음을
擇한 것 같다.

道里와 長畝의 水平이음
은 열장이음과 나비은장이
음을 混用하였다. 열장이
음은 이음등 가장 많이 사
용되는 것으로서 水平材의
이음에 사용된다. (圖 5)
連續시킬 한 部材의 끝에
주먹 모양의 장부축을
突出시켜 축의 端部 幅을 넓

를 잡고 最大幅은 길이의 크기 보다 크게 잡는다. 角材일때는 圓材와 달
리 길이 및 幅의 크기를 角材幅의 二分之一 이상으로 만들고 있다. 열
장이음과 흡사한 사모리열장이음도 많이 쓰이는 이음이지만 이 建物속
에서는 한군데에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장이음 대신 나
비은장이음은 道里이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이음은 축의 모양은 열
장장부축과 같은 것인데 연결시킬 兩部材를 凹凸形으로 만들지 않고 全
部 凹形 구멍만을 파고 별도의 나비 모양축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이
다. (圖 6) 이 이음은 길이의음으로 이용되는 것이 通例이지만 폭이음
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예는 一層 心柱上에 놓인
二層 心柱를 받드는 十字木의
一材에 사용하고 있다. (圖
7) 幅이음에서는 하나의
나비은장으로 튼튼하지 않
으므로 二個 이상의 은장
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의
은장크기는 이음할 材의 크
기에 比例한다. 또한 은장
은두를 이음材의 全幅 크
기로 하지 않고 一部分만
흡을 파는 境遇도 있다. 이
는 이음될 材의 은두 크
가 클때 사용된다. 十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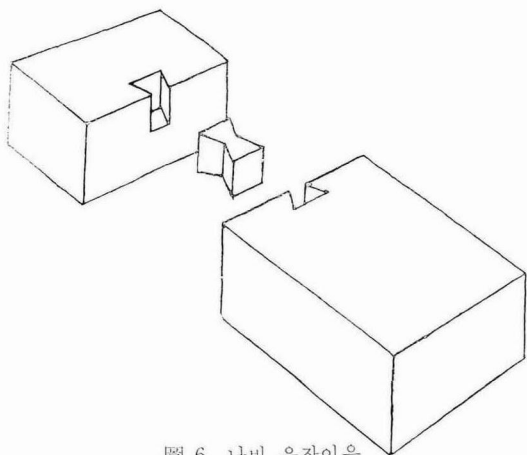


圖 6. 나비 은장이음

木에서 보면 은두가 一尺一寸으로 되어있고 은장 은두는 二寸으로 되었
다. 이음될 材의 六分之二로 은장 은두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은두를 잡
고 있는 것은 은장은두가 커지면 오히려 應力에 弱하게 되므로 미리 防
止하려는 意圖에서 온 것 같다. 그러나 이 나비은장만으로는 充分치 못
해 이음 면에 두개의 은못축을 끼워 이를 補強하고 있다. 은못축 사용
은 一般的으로 重疊되는 橫架材에서 볼 수 있는 手法으로 包材와 五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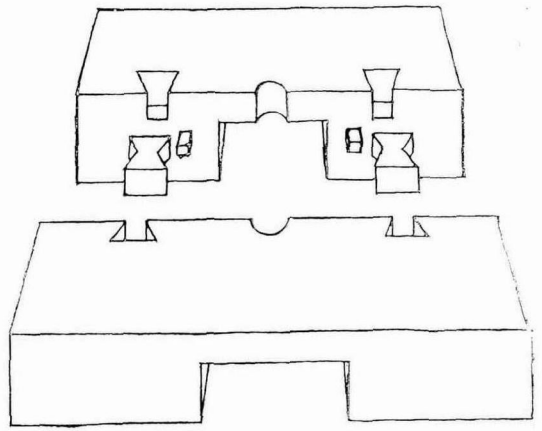


圖 7. 十字木 나비은장이음

內部 귀틀에서 보인다. 이 때의 은못축은 強度가 높은 雜木類로 使用되고 있으며 斷面의 形은 方形으로 하였다.

위에서 본 것은 주로 기둥, 道里, 長舍의 이음方法이다. 이를 이음의 種類別로 整理하면 垂直材이음은 기축이음이 大部分이며 一個所에서만 十字雙축이음을 使用하였고 水平材는 열장이음과 나비은장이음의 두가지를 使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水平材에서는 幅이음에서 은

음의 補強方法으로는 垂直材에서 비너장, 못축을 使用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다음은 맞춤 形式이다. 맞춤에도 여러 種類의 맞춤법이 있다. 部材의 大小에 따라 그 使用된 手法도 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大小 部材에 구애되지 않고 混用 될 경우도 있다. 또 두개의 部材가 接合될 때 必然的으로 部材에 凸形 突起를 만들고 다른 한 部材에는 凹形 구멍이 있어야 接合되지만 어느 部材가 凸形이 되느냐는 맞춤에 있어 重要な 것이다.

垂直材와 水平材를 結構할 때 普通 水平材에 突起를 두고 垂直材는 구멍을 파게 된다. 또한 垂直材나 水平材의 몸에 다른 部材의 水平材마 구리가 接合될 때는 마구리가 凸形이 되어 몸에 파인 구멍에 맞추도록 하였다. 接合되는 水平材의 몸과 몸이 서로 直交하거나 斜接할 때는 두 部材 모두 凹形 구멍을 만들어 咬을장과 받아들임으로 處理하고 있다. 水平材를 垂直材에 맞춤할 때 卽 根樑이나 격양등을 기둥 몸에 結構시킬

때는 썩거나 산지 또는 비너장을 使用하여 맞춤 部分을 補強시키고 있다. 이러한 補強材를 使用하는 原因은 垂直材에 凹形 구멍크기를 凸形 축크기보다 크게 만들기 때문에 맞춤 후에도 完全히 統合이 안되어 움 직이므로 이 움직임을 固定시키기 위해서 他材로 이를 補強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建物에서는 어느 部材에 어떤 맞춤을 使用하였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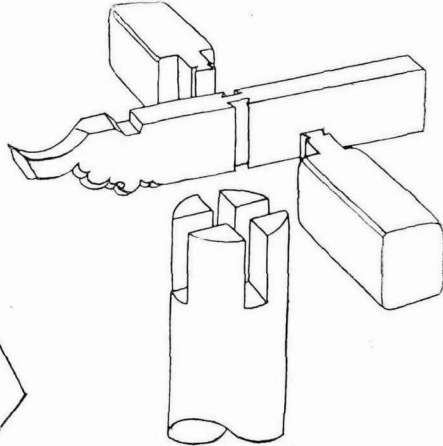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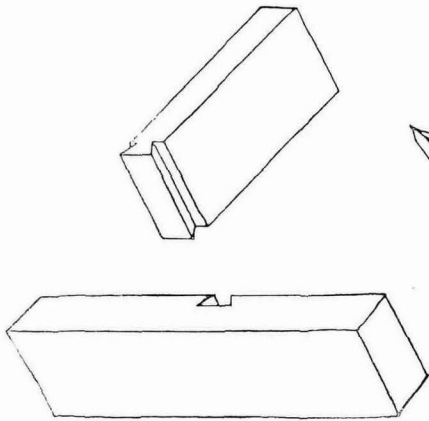


圖 8. 四掛 맞춤

우선 기둥 머리의 맞춤부터 보면 기둥은 그 머리에 昌防과 初諸貢을 걸쳐 全材를 짜도록 하였다. 昌防과 諸貢을 기둥 머리에

서 짜임하기 위해 기둥머리를 十字로 조각하여 네 개의 축을 만들고 凹形의 直交하도록 하였다. 凹形의 直交 구멍에서는 昌防과 諸貢이 서로 맞춤되고 그 위에 柱頭를 얹도록 하였다. 이 맞춤은 四掛맞춤이라 부르는 맞춤 方法으로 기둥과 昌防과 諸貢 또는 보가 짜이는 基本 맞춤 方法으로서 木造建物에서 볼 수 있는 手法이다.

圖 9. 열장 맞춤



(圖 8) 기둥머리에서의 昌防과 諸貢은 열장맞춤으로

짜 맞추고 있다. (圖 9) 이때 장부축은 昌防의 마구리에 만들고 장부구멍은 諸貢의 몸 양면에 만들어 左右 昌防 마구리를 끼워다. 이와 같은 방법은 長舌와 椶櫟 맞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귀기둥도 四掛맞춤으로 되었으나 平柱와 다른 것은 귀諸貢이 四五度角으로 걸쳐야 되므로 기둥머리를 十字로 파낸 外에 四五度角으로 더 分割한 것이다. 귀기둥머리에서의 맞춤은 열장맞춤이 아니라 直交하는 昌防끼리를 十字맞춤의 엮음장 받음장으로 포개고 그 위에서 엮음장으로 귀계공을 내려 짜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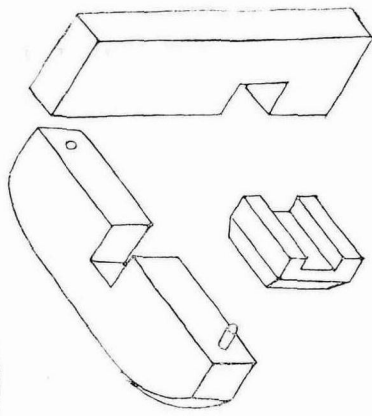


圖 10. 十字맞춤

기둥 上部의 包材 맞춤은 全部 十字맞춤으로 하였다. (圖 10) 이 맞춤은 包材 맞춤의 基本的 맞춤法으로 直交하는 二材를 十字걸이로 하여 짜맞추는 手法인데 우리나라 木造建物の 包材 大部分이 이 맞춤으로 되어 있다. 二材가 十字걸이 될때 一材는 바닥면으로 부터 材 운두의 二分之一을 따내고 他 一材는 뒷면에서 같은 길이로 따내어 맞추도록 한 것인데 前者를 엮음장이라 하고 後者를 받음장이라 하며 엮음장이 위로 가고 받음장이 밑으로 가게 하는 맞춤이다. 이 맞춤은 水平材의 맞춤에서만 이용되며 工作이 簡單하여 가장 많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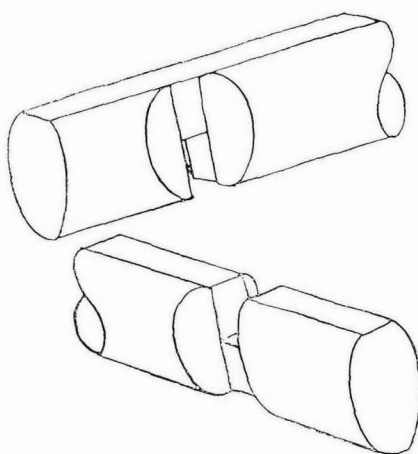


圖 11. 왕찌 짜임

용된 것이다. 道里가 건물 隅角에서 서로 直交할 때 이 맞춤을 사용하였다. 角材가 아닌 圓材의 十字맞춤은 一名 왕찌 짜임이라고도 부르며 모든 建物の 道里맞춤은 이 工法을 사용하고 있다. (圖 11) 長舌의 귀맞춤, 五層 内部의 귀틀도 十字맞춤으로 하였고 그 外의 모든 角材의 모서리맞춤에서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내림턱열장맞춤을 사용한 곳은 기둥몸에 椶櫟을 끼울때 사용하였다. 椶櫟 마구리에 열장 장부축을 돌출시켜 기둥몸의 구멍에 끼웠는데 이때 기둥 몸의 장부구멍은 후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끼움 후에는 앞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圖 12) 이 맞춤형식은 통끼음의 發展形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림턱열장끼음에는 반드시 榫가 사용되어야 튼튼하게 된다. 열장 장부축으로 해서 앞으로 내오려는 것을 못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위로 들리려는 것은 榫가 막도록 하였다. 그 外의 補強方法으로는 마이 산지를 사용하고 있다.

圖 12. 내림턱열장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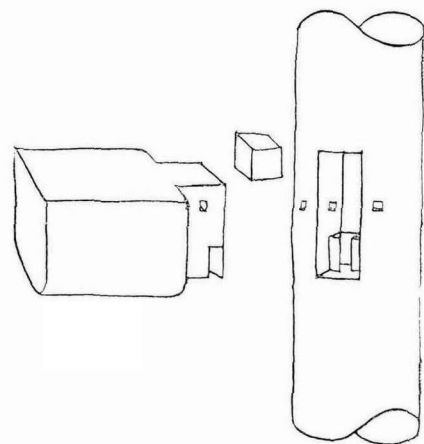


圖 13. 통끼음

통끼음은 四天柱와 三層 高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四天柱에서는 四面壁

體를 위해 四天柱 사이를 가로 지를 水平材를 통끼음으로 하였고, 三層 高柱에서는 격양의 맞춤에서 볼 수 있다. 이 끼음은 垂直材에 水平材를 끼음할 때 水平材 마무리를 加工하지 않고 바로 垂直材 구멍에 끼음하는 것으로 맞춤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며 原始形이라 할 수 있다. (圖 13) 이 통끼음은 大部分 大部材에 小部材를 接合시킬 때 쓰이며 構造材가 아닌 部位에서 쓰인다. 통끼음을 할 때 水平材 마무리를 凸形으로 만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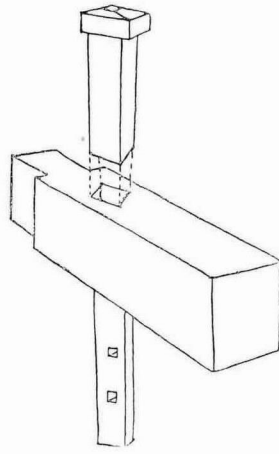


圖 14. 五層추너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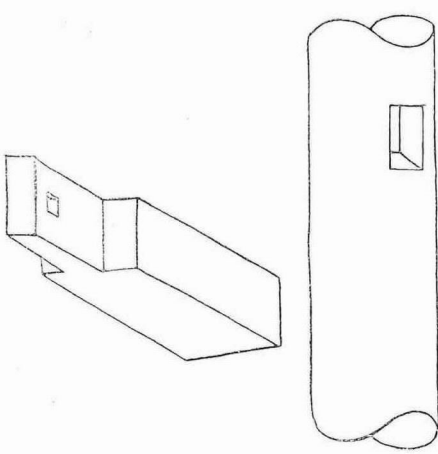


圖 15. 二·三·四層추너맞춤

용하였으나 五層 추너에는 통끼음한 후에 끼음한 위치 앞에 장부구멍을 통끼음하고 비너장을 길게 못아 비너장 끝을 心柱 木에 鐵釘으로 固定시켰다. 五層 추너의 結構方法은 흔하지 않은 手法이며 特異한 맞춤形式이다. (圖 14) 二, 三, 四層 추너뿌리亦是 통끼음하였는데 一層 추너의 結構와는 다른 手法를 사용하였다. 一層 추너

뿌리는 二層隅柱의 장부구멍이 완전히 贯通되지 않은 狀態에 끼음하였는데 一, 三, 四層 추너는 二, 四, 五層隅柱의 완전 贯通된 구멍에 막 끼음되었고 그 뿌리 끝에는 一層 추너에서의 막이 산지가 아닌 방주산 지를 꽃아 補強하였다. (圖 15) 이와같이 그 手法를 달리한 原因은 内部 構造에서 온 結果인 것 같다. 이 建物은 一層부터 三層 天井까지가 通層으로 되어 있고 特別히 一層의 추너뿌리가 一層 바닥에서 보이는 位置에 있으므로 막 끼음을 하면 美觀이 좋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게 處理한 것 같다.

一層柱를 가로 지를 下防에는 가름장 맞춤으로 하였다. 이 맞춤은 下防에서만 보인다. 가름장 맞춤은 垂直材에 水平材를 끼워 맞춤때 사용되는 것으로 水平材兩端에 두개의 장부목을 만들고 垂直材에는 장부구멍을 장부목과 같은 모양으로 파내어 끼음하는 것으로 주로 引防을 기동에 接合할 때 쓰인다. (圖 16)



圖 16. 가름장 맞춤

一層으로부터 四層까지의 木들 및 杖들은 緣歸로 되었으며 一層의 高柱 周圍 마루틀과 廳板은 변방 木임으로 하였다. 추너와 道里가 막나는 곳의 補強은 양저 짜임 윗면과 추너바닥에 圓形은 못족 구멍을 뚫어 은 못족이 上下 部材를 結속시키었다. 이와같은 은 못족의 사용은 椽木 끝의 멍에창방에서도 보인다. 멍에창방에 사용된 은 못족은 연목뿌리를 固定시키기 위한 것으로 重層 이상의 건물에서 많이 쓰이는 方法이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聯釘이 연목뿌리에 必然의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연목을 贯通시킨 聯釘은 멍에창방에 꽃힌 은 못에 걸려 椽木이 흘러내리지 않

도록 하고 있다. 은못축의 사용은 기둥 위에 놓인 柱頭와 包材 사이 사 이에 配置된 小果 밑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帶鐵의 사용은 단 한군데도 없었고 鐵釘은 椽木을 道里 위에 얹을 때 하나 걸러씩 사용하였으며 平交台와 椽合에도 鮮釘을 막아 椽木과 緊結 시키고 있다.

이상은 捌相殿의 木部 接合(이음과 맞춘)을 調査한 大略의 것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綜合하여 表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분류	種 類	部 材 名	補 强 材	備 考
음	긴축이음	三層高柱 四天柱 心柱(刹柱)	비너장 비너장	垂直材 垂直材
	十字雙축이음	心柱(上部)		垂直材
이	얼장이음	道里 長舌		水平材 水平材
	나비은장이음	道里 十字木(心柱上)	方形은못축	水平材 水平材
출	四掛맞춤	一~五層柱 四天柱		垂直材 垂直材 垂直材와 垂直材와
	얼장맞춤	諸工과 昌防 椽梁과 長舌	圓形은못축	水平材 水平材 水平材와 水平材와
	十字맞춤	道里 長舌 十字木(心柱上)	方形은못축 方形은못축	水平材 水平材 水平材와 水平材와
	내림턱얼장맞춤	기둥과 멍에창 방둥과 멍에창	막이산지	垂直材와 垂直材와
	통맞춤	방둥과 벽양 防四天柱와 壁中	막이산지 방둥산지	垂直材와 垂直材와 垂直材와 垂直材와 斜材
맞	기둥과 추너			

가름장맞춤	一層柱와 下防	垂直材와 水平材
椽歸	一~四層의 문틀과 창틀	垂直材와 水平材

清州 雲泉洞 出土 金銅菩薩 立像과 銅鐘

金 永 培

忠清北道 清州市 雲泉洞 三七六一번지 崔龍文氏 소유 新築家屋의 단 장工事중 發見된 一連의 佛像과 佛具類가 一九七〇年 四月 十日 公州博 物館으로 移送되어 保管하고 있는데 出土遺物은 모두 귀중한 作品들이어 서 筆者가 現地踏査를 한바 있으므로 概要를 이곳에 紹介하는 바이다.

發見場所를 略記하면 清州市內를 南北으로 흐르고 있는 無心川의 西岸 을 따라 조금 北上하면 龍華寺址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約六百m 北上 하면 바로 無心川邊에 清州市 雲泉洞 一帶가 나서는데 小地名으로는 清 原郡 四州面 山直말(서들)이라고 하는 비교적 넓은 平野地帶가 展開된 다. 이곳 三七六一番地 田四三坪에 垜地를 造成하고 崔龍文氏가 家 屋을 新築하였으며 단장工事를 하기위하여 基礎溝를 파내려가는데 道具 에 쇠부치가 닿는 소리가 나서 조심스럽게 파본결과 一括의 佛具가 發 見되었다는 것이다. 埋沒狀態는 地表에서 約七十cm 밑에 梵鐘을 뉘어 놓 고 그 속에 金鼓一口 金銅菩薩一軀 香垵二個 鑲製鉢二個 등이 있었 는데 香垵과 鑲鉢은 完全히 부식되어서 原形을 알 수 없을 정도이고 銅鍾 과 佛像 飯子는 비교적 잘 保存되었으며 優作에 屬하는 作品들이다. 이 一帶에서는 無數한 瓦片과 高麗磁器片들이 散在하고 있어 過去에 寺址